5천여명 상대 120억대 '카드깡'

광주 백화점·할인점 전자 매장 이용

수수료 20%에 할부이자까지 떠넘겨

시중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의 신용대출 조건이 강화되면서 또다시 신용카드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 금리 제한(연 66% 이하) 등으로 고금리 사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개인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대거 '카드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광주·전남 등 서민 5천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20억원대의 허위매출전표를 만들고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카드깡' 총책 유모(48·서울시 강동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카드깡'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송모(여·27)씨 등 광주 시내 백화점 매장 관계자 5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집은 어떻게=유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부나 무직자도 가능, 필요하신 금액만큼 5분 안에 통장입금' '월 2%, 100% 신용대출' 등의 광고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전화가 걸려오면 자동응답기(ARS)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라"며 직접 응대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과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걸어오면 직접 상담원이 전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택배 등으로 받은 서민의 신용카드를 이용,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카드깡'을 했다.

◇무조건 20% 공제=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를 선이자로 뗀 나머지 80%를 현금으로 받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는 카드 모집책과 중매상·총책 등이 가로채고, 나머지 10%는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는 전자제품 매장 등이 챙겼다. 현재 카드 할부 이자액이 10%를 조금 웃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배 가량 비싼 것이다.

1천만원을 '카드깡'한 사람은 800만원만 받았으며, 수수료 외에 카드 할부에 따른 이자도 물었다.

◇백화점 직원들까지 연루=업자들이 거래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는 모 백화점 광주점 내 전자매장 등 광주지역 백화점 전자제품 매장 등 5곳이 포함됐다. 이들 직원들은 물건을 많이 팔면 전자제품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면 수법을 다음 직원에게 전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등 타지역에서 수천 회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가 작성됐는데 백화점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목사·中企 사장도 "급전 때문에…"

이번 사건은 그동안 개인 신용도로 인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유일하게 현금화할 수 있었던 '카드깡'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보여준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카드깡'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일부는 가족이나 친척의 카드를 빌려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카드깡'을 한 5천여 명 가운데는 교회 목사와 체불 임금으로 고민하던 중소기업 사장도 포함됐다. 개척교회 목사인 김모(45)씨는 교회 운영난에 허덕이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 750만원 상당의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현금서비스로 직원들 임금 문제를 해결하던 송모(52)씨도 카드 돌려막기를 해오다 '카드깡'에 손을 댔다. 이외 자식 병원비·생활 자금·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서 훔친 서류가방에 125조원대 미국 채권

경찰, 국제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수사

진품 여부가 불투명한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 채권이 국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각돼 경찰이 채권 출처 및 국제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은 24일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125조원대의 채권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배모(56)씨를 구속하고 배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절도 교사)로 추모(56)씨를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올해 5월 27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T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김모(47)씨가 잠이 든 틈을 타 객실에 침입해 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화 5억달러 규모의 채권 250장(한화 125조원 상당)이 든 철제 서류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액면가 5억달러로 A4 용지 크기인 이 채권은 미국 연방정부가 지급 보증한다는 문구와 함께 달러 표시가 들어 있으며 연둣빛을 띄고 있다.

경찰은 배씨와 추씨가 마약조직이나 국내외 폭력조직과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재정경제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채권 감정을 의뢰해 진품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서 가짜일 가능성이 있지만 진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 시정명령 위반땐 3천만원

차별금지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2003년 1월부터 제정을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은 총 4장 43조로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금지 및 예방 조치, 차별 구제 수단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권고 등 강제력이 없는 구제수단을 지녔던 것과 달리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하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영산강 대탐사 출발

남도의 젖줄, 영산강 350리. 4박 5일 동안 영산강 물길을 따라 환경조사를 벌이는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24일 오전 담양군 용면 용연리 가마골 야영장에서 시작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 살리기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탐사에는 광주·전남 10여 개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 등 110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생태·수질·역사 탐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담양=위직량기자 jrwi@

고교생들 대낮 자판기 털어

광주 북부경찰은 24일 북구 운암동 한 문구점 앞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부수고 5만4천여원 상당의 돈을 훔친 광주 J고등학교 1학년 김모(15)군 등 고교생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프랑스인 빌라 냉동고에 영아 시신 2구

서울 반포동…경찰 수사

프랑스인의 밀집 거주지역인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의 한 빌라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24일 수사에 나섰다.

이 지역에 사는 프랑스인 C(40)씨는 23일 낮 12시 자신의 집 냉동고에서 남자 아기 시신 2구를 발견해 지인인 이모(43)씨를 통해 관할인 서울 방배경찰서에 신고했다.

C씨는 "며칠 전 프랑스로 휴가를 다녀온 뒤 물건을 보관하려고 베란다에 둔 냉동고의 문을 열었더니 갓난아기 시신 2구가 꽁꽁 언 채 냉동고 2칸에 나눠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고 목격자와 주변 이웃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거문도 등대 항로정비 작업부 숨져

24일 오전 11시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등대 서쪽 해안에서 항로표지 정비공사 중이던 잠수 작업부 강모(42·여수시 화장동)씨가 328t급 바지선과 해상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해경은 강씨가 바다 밑에서 여수선적 예인선 58t급 '덕성호'가 끄는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과 해상구조물인 15t급 사각형태의 시멘트 블록의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바지선이 파도에 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여객선 회항해 '투신자' 극적 구조

쌍나팔

○…항해 중인 여객선이 "승객이 바다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회항, 익사 직전이던 20대 젊은이를 구조.

○…목포해경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35분께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선착장 앞 3마일 해상을 운항하던 '대흥페리 5호' 김진석(52) 선장이 투신 사건을 신고받고 신속히 뱃머리를 돌려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던 박모(25·서울시 마포구)씨를 10여 분 만에 구해냈다는 것.

○…해경 관계자는 "정신착란증 환자인 박씨가 여객선에 승선했다가 배가 출발하자 바다로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목포=이상휴기자 lsh@